

독일통일에서 한국통일의 교훈 배운다

독일통일 현장보고서 주류 이뤄...
통일의 방법론 일러주는 '교과서'

독일통일 문제가 한반도 역학관계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분단원인이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있었고 통일과정이 평화적이었다는 점에서 주목의 대상이 된 것이다. 국내에 출간된 독일통일 관련서는 대부분 독일통일 자체보다는 그것이 한반도 통일모델이 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요즘 세계언론의 주요 '취재원' 가운데 하나는 한반도다. '냉전의 마지막 섬' 한반도에서 봄기운이 완연하기 때문이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관계의 급진전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 역학관계가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는 것이다. '당위'의 차원이었던 한반도 통일문제가 이제는 '현실'로 성큼 다가오고 있다.

체제통합보다 심리적 통일이 더 중요해

서점가에서도 통일의 열기가 뜨겁다. 특히 올해 10주년을 맞이하는 독일통일의 실험을 통해 우리의 통일문제를 비추보려는 책들이 많이 나와 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주목할 만한 책으로는 한신대 국제관계학과 이해영 교수의 《독일은 통일되지 않았다》(푸른숲)로, 독일은 국가주도의 체제통합은 이뤘지만 사회적·심리적 분단은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한국사회학회가 엮은 《민족통일과 사회통합》(사회문화연구소)은 통독 10주년을 앞두고 지난해 KBS, 한국사회학회, 독일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이 공동 주최한 한·독 특별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논문과 토론을 수정·보완했다.

사회통합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 이 책은 독일통일에서 두가지 교훈을 이끌어낸다. 먼저, 통일형식이 통일 후 실제적인 사회 통합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는 것이다. 둘째, 통일 후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동과정은 탈산업화와 함께 동독 주민들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결국 정치적 통일보다는 심리적 통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이 책의 결론이다.

사실 독일통일 관련서는 1990년대 초에 봄을 이뤘다. 세계사적인 실험이라는 점에서도 흥미로웠지만, 강대국에 의한 분단과 평화적인 통일과정이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줬기 때문이다.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은 독일 통일의 현장 보고서부터 통일을 이끈 주역들의 회고록, 독일통일을 한국적 관점에서 분석한 책까지

다양하다.

《329일 독일통일》(이기백 편역, 한마당)은 독일 콜 총리의 외교담당 특보인 홀스트 텔시코의 '외교비사 일지'로 독일통일을 목전에 두고 부시, 고르바초프, 미테랑 등 세계 정상들이 벌이는 비정한 외교전쟁을 다뤘다. 이 책은 《329일 베를린 장벽 붕괴에서 독일통일까지》(엄호연, 고려원)로 다시 나왔다.

유럽사적 관점에서 독일통일 분석

독일통일 당시 서독 내무부장관이었던 볼프강 쇼이블레의 《나는 어떻게 통일을 흥정했나》(한우창, 동아일보사)는 1989년 가을부터 1990년 10월까지 통일협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고충을 기록했다. 지은이는 독일통일이 빠른 시간 안에 완수될 수 있었던 이유로, 동서독 정부와 시민들이 통일을 이루려는 강한 의지가 있었고, 서독정부가 단호하게 대처했던 점을 꼽았다.

지난 98년에는 독일통일의 주역이자 통일독일의 최초의 수상이었던 헬무트 콜 총리의 회고록 《나는 조국의 통일을 원했다》(김주일, 해냄)도 출간됐다. 냉전체제의 장벽을 허물어뜨렸던 주역의 외교적 협상력, 국제정치를 통찰한 혜안을 엿볼 수 있다.

독일통일에 대한 가장 방대하면서 종합적인 보고서는 《독일통일백서》(베르너 바이텐펠트 외 엮음, 임종현 외 옮김, 한겨레신문사)다. 이 책은 독일통일 전문가들이 주축이 돼 독일통일의 과정과 결과를 통일의 내부적 측면, 외부적 측면, 사회경제적 측면, 역사·정치적 측면, 법적 측면으로 나눠 고찰했다.

독일통일은 냉전체제의 해체, 분단구조의 해소라는 긍정적인 측면 외에 '서독에 의한 동독의 식민지화' '자본주의의 패권 확립'이라는 부정적 결과도 뒤따랐다. 그만큼 독일통일에는 모순과 이율배반성이 내포돼 있다는 분석이다.

독일통일의 결과를 둘러싼 독일 지성인들의 비판적 성찰을 담

은 《논쟁—독일통일의 과정과 결과》(프리데만 슈피커·임정택 편역, 창작과비평사)와 《독일통일, 한국의 모델인가?》(박장현 편역, 문원출판), 그리고 '독일사의 특수성'에 초점을 맞춰 독일의 패권주의로의 복귀를 비판적으로 분석한 위르겐 코카의 《독일의 통일과 위기》(김학이, 아르케) 등은 독일통일 문제를 유럽사적 관점에서 접근한다.

민주적 절차와 인권 존중 선행돼야

국내 저자들의 독일통일 분석서들은 대체로 통일과정의 한반도 통일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부각시킨다. 《독일통일과 통일독일의 이해》(박이도 편저, 신지서원), 《통일의 저력》(서병철 편저, 백산), 《독일통일과 동독재건과정》(김영탁, 한울아카데미) 등은 독일통일의 국내외적 요인을 분석하고 독일모델의 한계를 지적한다.

그밖에 독일통일 과정에서 드러난 국가체제 문제, 국제법적 지위 문제 등을 짚은 《독일 통일의 법적 조명》(허영 편저, 박영사), 《독일통일에 따른 법적 문제》(신용호, 전주대출판부)와 독일의 농업생산 측면과 지역사회의 변화를 중심으로 통일이전과 이후의 차이를 조명한 《통일과 농업》(김경량, 강원대출판부) 등도 나와 있다.



올해 통독 10주년을 맞이해 독일의 통일실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한 대형서점의 서가를 가득 채운 독일통일 관련서.

독일통일의 경험에 비춰보면 통일자체가 결코 '절대선'일 수는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통일 이후 갈수록 심화되는 동서독 주민간의 반목과 증오, 새롭게 대두하는 신나치즘, 패권주의의 부활에 대한 주변국의 의혹 등이 또다른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 결국 민주적 절차와 차이의 인정, 그리고 인권존중이라는 보편적 전제 위에서 출발할 때 분단극복과 완전한 통합이 가능하다는 점을 독일의 실험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박천홍 기자

“지속가능한 평화구조 정착이 통일의 선행조건이다”

《독일은 통일되지 않았다》 펴낸 이해영 교수



이해영 교수(38, 한신대 국제관계학과)가 1989년 독일통일 전야부터 2000년까지 독일 통일문제를 국제적 역학관계의 차원에서 분석한 《독일은 통일되지 않았다》(푸른숲)를 펴냈다. 10년의 연구성과를 담은 이 책은 통일에 대한 점진적이고 냉정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 제목이 대단히 역설적이다. 일반인들의 통념과는 배치되는데…

“독일이 통일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책

의 주된 테제다. 독일통일은 서독의 자본주의가 동독으로 이식된 과정이다. 독일 민중의 관점에서 볼 때, 독일통일은 '이중의 식민화' 과정일 뿐이다. 즉, 자본주의에 의한 식민화와 동독 주민들의 생활세계의 식민화가 중첩돼 있다. 독일은 체제통합에는 성공했지만 사회통합에는 아직 이르지 못한 것이다. 구동독 주민이 연방정부의 시민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10%에 불과한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 올해는 독일통일 10주년이다. 통독의 역사적 의미는 무엇인가.

“통독은 자본주의의 지구화를 의미한다. 통일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평가하자면 냉전 종식을 들 수 있다. 하지만 국제정치의 시각으로 보면 소련이 동독을 팔아먹은 것에 불과하다. 당시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국내 정치·경제적 위기와 동독 대중운동 때문에 동독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다고 판단했다. 그럴듯한 정치적 수사를 내세웠지만 결국은 서독의 차관 약속을 받아들여 동독을 내준 것이다.”

— 통일의 이념형으로 과정론적, 합의주의적 통일을 주장했는데…

“통일은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통일과정에서 무수한 난관에 봉착할 것

이다. 통일 후 누가 권력을 잡고 얼마만큼 권력을 나눌 것인가부터 시작해 토지소유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해결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따라서 성급한 건 금물이다. 남북한 동시개혁론이 현실적이다. 남한 자본주의 모순과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모순을 동시에 개혁해야 한다.”

— 최근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런 국제정세가 한반도 통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최근 정세가 통일국면은 아니라고 본다. 남북의 긴장완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현단계에서는 천천히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지속가능한 평화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통일에 ‘딴지’를 거는 극우보수세력과 통일에 대한 낙관적 환상을 품는 세력 모두 경계해야 한다. 아래로부터의 합의를 거치면서 단계적으로 통일에 접근해야 한다.”

— 독일 통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독일과 한국의 분단과정은 비슷하다. 국제정세에 압도적으로 영향을 받는 점이 그렇다. 물론 차이는 있다. 독일이 유럽의 맹주인 반면, 우리는 동아시아에서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내부의 통합에 기초한 탁월한 국제외교력이 중요하다.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통일에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다. 독일통일 과정에서 신자유주의적으로 접근한 결과 동서독 주민 사이의 내부균열이 심각해졌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 한반도 통일을 위해 현단계에서 선결돼야 할 과제는?

“통일과정이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정상적인 상태로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점에 대해 남북의 합의가 필요하다. 전쟁방지의 합의를 남북 모두 내면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축이 가장 핵심적이다. 군축예산을 사회복지 예산으로 전환해 남북한 민중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